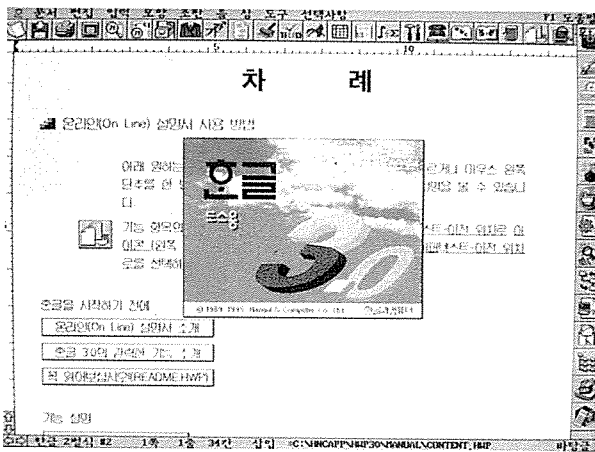




국내 최대·최고의 소프트웨어 전문

한글과 컴퓨터

창업 6년만에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회사로 부상한 「한글과 컴퓨터」사는 '도스용 한글 3.0' 개발로 활기가 넘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하는 31세의 이찬진사장은 98년 중국·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2백80여명의 종업원과 손잡고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다.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개발한 「도스용 한글 3.0」 출력화면

사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러나 「한글과 컴퓨터」는 대개의 중소기업체가 안고 있는 인력난을 한번도 거치지 않은 업체다.

이찬진사장 개인의 덕이 있어서인지 「한글과 컴퓨터」 자체에 매료되어서인지 몰라도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이상(理想)'이 같아서였을까? 이들 모두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발한다는 신념 하나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번에 개발된 「도스용 한글 3.0」 또한 이러한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제품이다.

“업계가 모두 윈도우즈 95의 발표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터에 도스용 한글 2.5의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 그런지 반응 또한 무척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용자 다수가 아직은 윈도우즈환경에 익숙치 못한 상황이고 도스용 한글 3.0개발은 이미 「한글과 컴퓨터」가 사용자에게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이사장은 전한다.

2.5판이 개발된지 꼭 1년만에 업그레이드된 「도스용 한글 3.0」은 20여명의 연구원이 참여 개발한 것으로 더욱 빨라지고 편리해진 도스로 이해해도 무난할 것이라 한다. 예를 들어 문서편집을 하다가 영문자판으로 선정된 상태에서 한글을 입력하거나 한글 자판에서 영문을 입력해서 다시 입력해야 할 경우, 「도스용 한글3.0」에서는 '도구 - 빠른 교정 - 한영전환'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어 한글을 영어자판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잘못 입력한 경우 「Space」나 「Enter」를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고쳐지기 때문

영등포에 자리한 「한글과 컴퓨터」사(사장 이찬진·31)는 이제 선후배 몇명의 뜻이 어우러져 시작했던 과거의 소규모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다.

창업한지 6년반만에 종업원 2백80명, 매출액 2백억원이라는 가시적인 성장은 차치하더라도 내부적인 짜임새나 체계화된 조직은 이제 자타가 인정할 만큼 국내 최대·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칭호를 듣기에 손색이 없다. 더욱이 사내 각층마다 마련된 슈퍼마켓에서나 볼 수 있을만한 대형냉장고에는 음료수로 꽉 차 있었는데 직원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어느 초일류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세심한 배려가 아닐 수 없다.

인력난 한번 안겪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도 있듯이 기업에 있어

에 성능이 훨씬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업그레이드된 기능 외에 새로워진 기능으로 '자동도움말' 기능은 한글을 사용하다가 생소한 경고문이 갑자기 뜨면 무척 당황하게 되는데 이때 「도스용 한글3.0」에서 한글 사용도중에 경고문이 나오면 자동으로 경고문에 대한 도움말이 나타나 잘못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책갈피기능 개발로 인기

이외에도 '책갈피' 기능으로 독서를 하다가 필요한 곳에 책갈피를 끼워두는 것을 응용하여 문서를 편집하는 도중에 본문에 표시를 해주었다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표시해 둔 곳으로 커서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또 이 기능은 책갈피로 표시한 부분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어 쉽게 원하는 곳으로 커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

「도스용 한글3.0」 개발에 직접 참여한 한 연구원은 "새롭고 뛰어난 기능도 많이 넣고 싶었지만 일단 도스에서 한글을 사랑해 주는 사용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들이 애용하는 많은 기능을 보다 편하고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용해보고 또 그 기능을 편리한 쪽으로 개발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겉으로 보기에 현란한 기능이 많은 소프트웨어보다는 사용자의 손에 '쫉쫉' 달라붙는 제품이 되길 희망한다는 표현을 덧붙였다.

한때는 이공계 출신이 사업을 해야 얼마나 하겠느냐는 걱정과, 컴퓨터에 미친(천재) 아이들이 몇번 툭탁거리다 말겠지 하는 우려의 소리도 들었지만 요즘 「한글과 컴퓨터」는 상황

이 좀 다르다.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히어로(영웅)가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꿈꾸는 젊은이에게 이사장은 한결같이 "열심히 한다는 것과 노력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는 말을 평소 신조로 여기는 이사장인 터라 원하는 만큼 노력을 하되 효율적인 노력을 하라는 충고도 빼놓지 않는다. 또한 기업

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경영이 아닌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이 되어야 하며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찾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평소지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97년엔 주식 상장계획도

「한글과 컴퓨터」는 95년 현재 단일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약 1백20만 개의 판매기록과 '한글' 사용자 약 3백만명이라는 모든 신화를 뒤로 한채 다가올 21세기 종합소프트웨어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오피스웨어, 정보통신, 홈웨어의 5개 부문으로 조직을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한컴비전2000'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한글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한글의 솔루션화 작업추진, 97년에 주식 상장



을 위해 지난 7월에는 한국 IBM과 전략적인 제휴를 함으로써 주식 시장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외부투자 유치분 중 5%의 지분 매각.

98년에는 기존 제품들을 영문화 하는 것 외에도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 연구소」의 백신제품 V3의 인터넷 셰어웨어화와 중국 및 미주시장 진출을 겨냥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등을 통하여 해외의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공략하겠다는 모두 다 야심찬 계획들 뿐이다.

자칫 나태해질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조직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추스려본다는 이사장은 "99년까지는 7백명 규모로 사원을 증원하고 2000년대까지 연매출액 1천억원을 올리는 세계적인 종합소프트웨어사로 변신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보였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